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일 것이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심지어 생명을 내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는가?(계 13:15)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하고, 순교하더라도 지켜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예배인 것이다. 이처럼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이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특권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 4:23)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왜 찾는 것일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려고! 이 얼마나 영광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니! 만나서 무엇 하시려고 찾으시는 것일까? 구원과 치유와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기도 응답과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찾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의 백성들로부터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종종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쓰는 표현과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예배는 결단코 구경하고 감상하고 보는 것이 아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배의 최우선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더군다나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자가 있고, 거절하시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인이나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열납하셨지만,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인류 역사 초기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과 진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고 마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마냥 안심하고 기뻐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